

# ‘아시아 고속도로’ 건설 어떻게 되고 있나? 국토개발측면의 「아시아 고속도로」 건설과 비전

What's Vision For Asian Highway Construction



글 / 鄭武鎔  
(Chung, Moo Yong)  
도시계획기술사, 공학박사,  
대한콘설탄트 부회장,  
연세대/경원대 강사(현),  
한국기술사회 홍보위원장,  
E-mail : dhconsul@chollian.net

It seems to possible to construction of Asian Highway that will connect 32 nations of asian total 45 nations.

Asian 32 nations will be connected by Asian Highway Project. and Since 1965, this project had been discussed four times to when ESCAP managed this project. This article is study about 'Asian Highway construction and vision' at the view of national land development.

## ■ 서론

아시아의 총 45개 국가 중에서 32개 국가를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아시아 고속도로(Asian Highway = AH)' 건설이 가능해 보인다.

아시아 하이웨이(AH) 프로젝트는 국제 고속도로 구상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미 1959년에 15개 국가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동안 1965년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주관이 되기까지 24차례나 걸쳐 논의된 바도 있다. 2004년 4월 26일에 각국의 정부대표가 상하이(上海)에 모여 논의 끝에 「아시아 고속도로 건설」의 추진에 있어서 정 부간 협정도 곧 이루어질 전망이다.

## ■ 기대되는 건설목표

21세기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어서도 아시아를 하나로 연결하여 세계화의 국제하이웨이 네트워크(Net Work)가 결국에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① 4대륙을 고속교통시스템에서 네트워크(Net Work)화

- ② 아시아 고속도로는 특히 아시아 평화를 실현 하고

- ③ 국경을 초월한 교통망-사람(人), 물동량(物), 정보, 교류원활에 일익 담당

- ④ 아시아 여러 국가의 공동체화, 공동번영의 기대

- ⑤ 자국민(自國民)의 고용증대와 차관사업지원 등은 자국의 국토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 5가지의 프로젝트방안을 정립하면서 개발효과를 기대해 본다.

## ■ 4대륙을 고속교통시스템에서 네트워크(Net Work)화

전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21세기의 세계의 새로운 국제질서는 아시아(Asia)주, 아메리카(America)주, 유럽(EU)주, 아프리카(Africa)주의 4개 대륙을 연결하는 국제적 고속도로(International Highway)가 세계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도 큰 비전을 구축할 때다.

특히 국경 없는 무역경제경쟁으로 노비자(No Visa)의 새롭게 변화되는 앞으로의 시대가 도래될

것인바 모든 나라도 교류가 원활히(人, 物, 情報) 이루어져 사람의 자유왕래,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더욱 촉진될 것이다. 현재의 문제점은 각국의 '노·비자'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아시아 고속도로의 루트(Route)는 어떻게 계획되고 있나?

한국에서 출발하는 아시아 고속도로는 일본·중국·러시아 등 32개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 구축 사업으로 55개 노선으로 총연장만해도 14만km로 계획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해당되는 주요 아시아 하이웨이는 ①번 노선(AH1)과 ⑥번 노선(AH6)이 있다.

■ 한국 - 중국 동남아시아와 인도-터키까지 (14개국을) 통과하는 AH1 노선

①번 노선의 루트(Route)는, 일본-부산-서울-평양-신의주-중국(베이징-광저우)-베트남(하노이-호치민)-캄보디아(프놈펜)-태국(방콕)-미얀마(양곤)-방글라데시(다카)-인도(캘커타-뉴델리)-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아프가니스탄(카불)-이란(테헤란)-터키(앙카라-에디르니) 국경까지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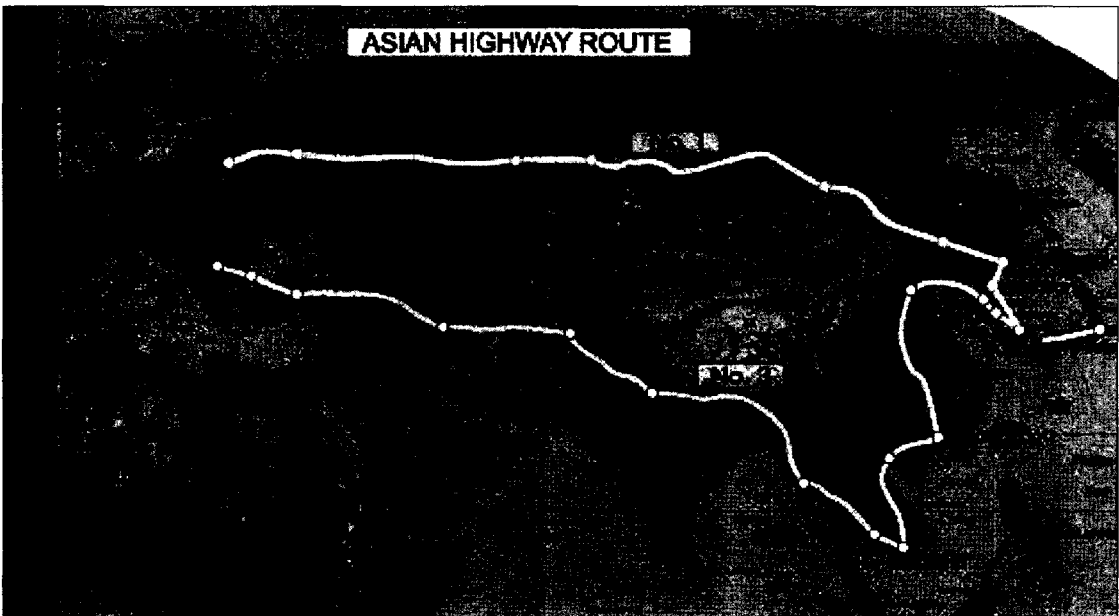
이 노선은 동북아와 시베리아 러시아를 통하여 유럽의 영국까지 연결되는 주요 노선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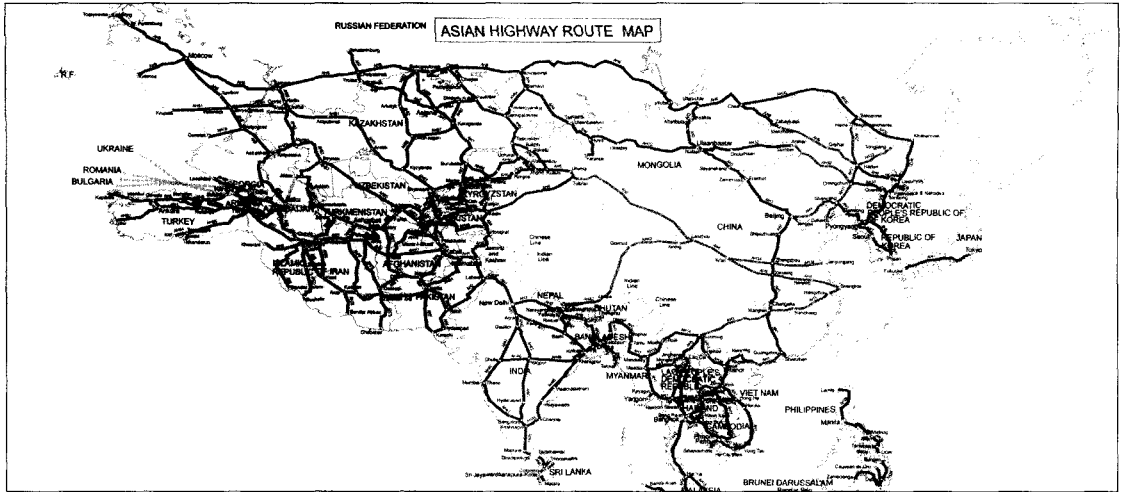
■ 남·북한·러시아의 핫산 시베리아를 경유 유럽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AH6 노선)

⑥번 노선의 루트(Route)는 부산-경주-강릉-원산-나진-러시아의 핫산-블라디보스토크-중국의 하얼빈-러시아의 치타- 이르쿠츠크-크라스노야르스크-노보시비르스크-옴스크-사마라-모스크바-크라스노(러시아 국경)까지 계획되고 있다.

앞으로 국경 통과 문제까지 논의가 이루어져야 실제 아시아 고속도로를 통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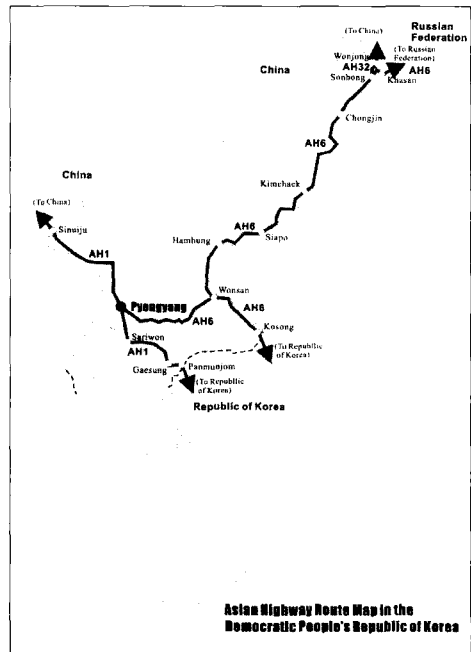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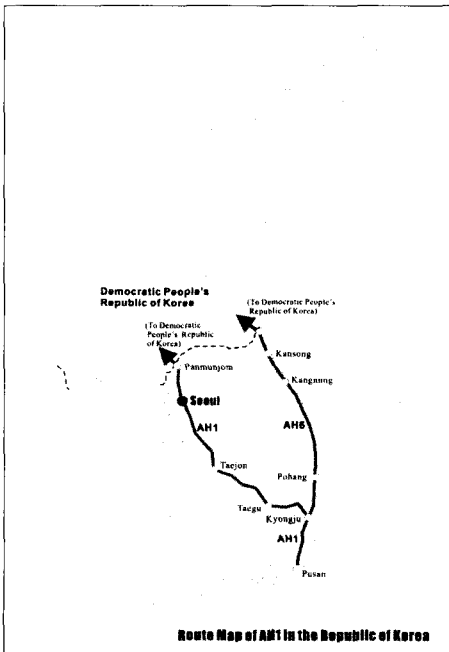
새로운 변화에 대비한 노비자(No Visa)가 국가간 이루어지면, 미주지역의 북미(캐나다)-중미(미국)가 고속도로도 노·비자 통과라든지 현재 유럽(EU)도 실현되고 있듯이 아시아 지역에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의 아시아 고속도로 노선계획(안)은 어떻게 제안되고 있는가?
  - 남·북한의 아시아 고속도로계획 노선(안)을 보면 우리나라는 총 연장 907km이고, 북한은 1,320km를 계획·제시하고 있다.
  - ①번 노선(AH1)은 부산-대구-대전-서울-사리원-평양-신의주 중국의 단둥으로 연결된다.

- ⑥번 노선(AH6)은 경주-포항-강릉-간성-고성-원산-함흥-김택-청진-나진-선봉-두만강-러시아까지가 우리나라의 아시아 고속도로 중 제일 긴 루트다.
- 북한은 평양-원산까지를 추가로 ⑥번 노선(AH6)를 계획하고 있고 ③2번 노선(AH32)을 나진-선봉에서 원정 중국 노선을 제안하여 놓고 있다.



• 아시아 고속도로의 표준단면도는 4등급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왕복 4차선의 아스팔트 혹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설계로서 폭은 50m이고 2, 3등급은 폭 40m도로를 구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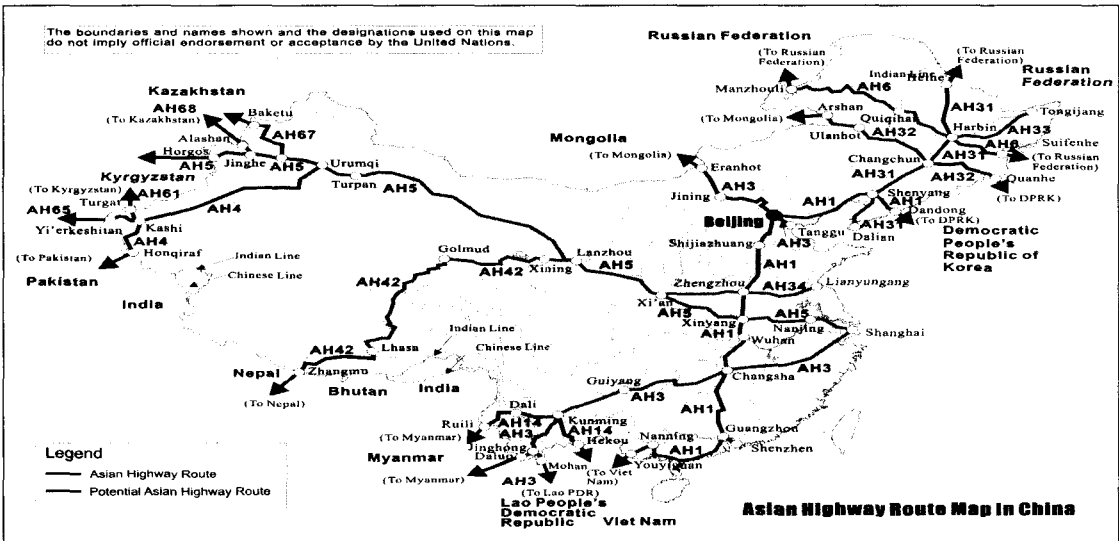
■ 중국의 아시아 고속도로계획 노선(안)

우리나라와는 ①번 노선(AH1)으로 통하는 중국은

■ 러시아의 아시아 고속도로계획 노선(안)은?

• 우리나라와는 ⑥번 노선(AH6)으로 통과하는 러시아는 11개 노선 총 연장 16,868km로서 아시아 고속도로 계획안의 연장으로는 2위 국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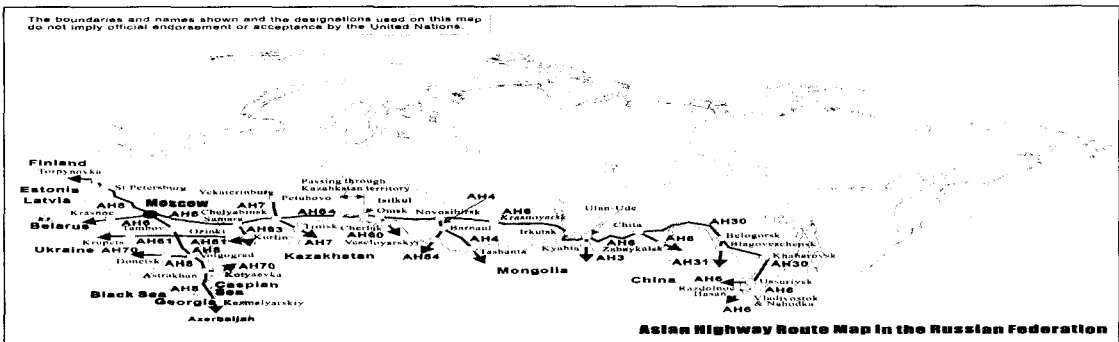
⑥번 노선인 핫산-블라디보스토크-치타(Chita)-울란우데- 이르쿠스크-크라스노야르스크-노보시비리스크



총 15개 노선에 연장 25,579km나 되고 있어 아시아 고속도로 140,479km중 제일 많은 고속도로 연장의 국가이다.

• 상하이에서 낭징-쑤양(Xinyang)-시안(Xian)-란조유(Lanzhou)-우루무치(Urumgi)-징헤(Jinghe) 국경까지가 제일 긴 고속도로(AH5)구간이고 그 다음이 아시아 고속도로 ①번 노선(AH1)구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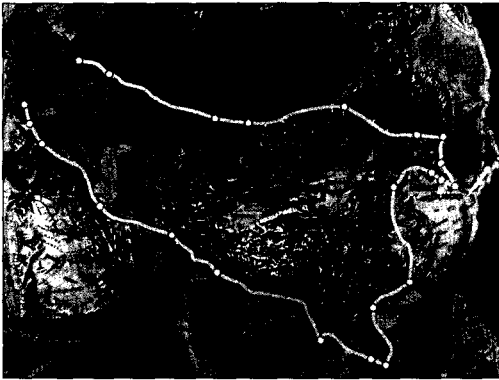
-옴스크-페트호보-사마라-모스크바-크라스노에 국경까지 제일 긴 아시아 하이웨이 루트이고 그다음은 ⑧번 노선(AH8) 그루지아국의 경계에 러시아의 도시인 카스말야루스키에서부터 러시아 모스크바를 거쳐 토르피노브카까지 핀란드 국경선근처에 연결되는 루트인 것이다.



### ■ 아시아 고속도로는 평화의 실현화

아시아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도 강구되었으면 한다.

이념이 다른 우리나라도 남·북한 문제의 해결방안도 모색될 수 있었으면 한다. 서울-평양-신의주-단둥을 통과할 수 있는 3번 노선, 그리고 6번 노선이 부산-경주-강릉-금강산-원산-함흥-김택-청진-나진·선봉-러시아의 핫산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하이웨이는 남북왕래의 평화무드 조성으로 상호 거리감도 좁힐 수 있고 교류의 활성화가 그 변화를 실현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 ■ 국경을 초월한 교통망은 사람(人), 물동량(物), 정보, 교류에 큰 변화 예상

이러한 국경을 초월한 교통망은 사람의 자유왕래, 문화적 경제교류가 보다 활성화되고 촉진시켜진다.

아시아 하이웨이는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더 종합적 의미에서 초고속철도나 리니어모타카, 고속물류시스템, 통신네트워크를 병행해서 보면 육로의 초고속시스템이 공항(AirPort), 항만(Seaport)과의 연계화 까지를 종합적 교통물류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 아시아 여러 국가의 공동체화, 공동번영 기대

아시아의 세계의 새로운 국제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도 아시아 고속도로(AH)는 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도 더욱 기여 할 것이다.

- 자유왕래 실현의 결과는 문화·경제적 교류가 결국에는 각국들의 공동 번영으로 진전될 것이다.

- 국가간의 경제적 격차, 이데올로기의 대립해소 방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장래 21세기의 아시아 공동체 형성에도 발전적 진전이 예상된다.



태국의 AH1 루트의 전경



미얀마의 양곤의 아시아 하이웨이 루트



카자흐스탄의 AH5루트 알마티

## ■ 자국민의 고용증대와 자국의 국토개발에도 크게 기여

- 관광산업 활성화, 물류교류 변화 -

아시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들의 상호 활발한 경제교류로 아시아 하이웨이 역할은 자국의 고용증대(물류, 관광산업 등)가 기대되고 특히 자국의 국토개발(기반시설구축·관광지개발 등)에 있어서도 균형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2개국을 통과하는 아시아 고속도로는 각국의 자국국토개발이란 지역개발의 인프라구축, 도시개발, 관광개발, 유통기지 등의 “기본국토 구상”은 고속도로 연계성과 도시개발부터 농촌개발에 이르기까지의 큰 변화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선진국가와 개발도상국간의 인적, 물적 교류는 국토개발의 변화가 국제적 자유교류인 “노·비자” “노·텍스”까지 외교관계의 변화가 온다면 자국의 지역, 관광, 국토개발의 촉진이 예상된다.

## ■ 자국의 국토발전을 위한 IC주변개발과 도입시설의 촉진

아시아 고속도로(AH)를 건설하는데 막대한 경제적 낭비, 자원의 손실을 피하려면 국토의 토지이용계획적 측면에서의 노선확정, 개량, 정비, 신설 등의 새로운 인프라(infra) 가능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아시아 고속도로 주변에는 자국별 ‘개발 IC제도’를 도입할 때 지역개발을 유도·유통단지조성, 경제특구(자유도시조성), 골프장, 스키장 등 리조트 휴양지 조성, 호텔, 업무용, 종합레크레이션 시설을 유도, 노·비자로 자국의 관광을 증대

• ‘하이웨이 오아시스’를 활용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지역 거점 조성을 아래와 같이 실현할 수 있다.

- 지역특산물 판매센터, 각국의 정보제공시설, 온천·골프레크레이션 시설, 향토자료관, 역사박물관

- 아시아 고속도로 양측 폭 500m씩 자유지대 도입
- 인종·민족을 초월한 국적과 관계없이 자유교

류 노비자(No Visa) 노텍스(No Tex)가 가능하게 되어야 하는 외교문제 해결

• 어떤 구간은 환경보존을 위한 그린벨트 설치도입

• 어떤 구간은 자유경제구역(경제특구)을 지정하여 자국의 이익에 필요한 개발시설 도입, -관광특구 첨단산업 자유지대 등을 설정하여 자국의 경제 활성화가 가능토록 도입하여 경제적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이러한 고속도로 주변지역에 각국의 특성성 있는 개발로 아시아 전지역에 파급효과가 자국발전의 큰 전인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다.

## ■ 결론

아시아 고속도로(AH)의 매력은 사람, 물류, 정보화에 큰 기여가 되겠지만 장래 21세기에는 ‘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에 변영과 교류가 발전적으로 진전될 것이다.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잇는 아시아 고속도로의 매력은 장차 전세계를 오붓한 마이카 가족여행을 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할 것이다.

아시아 14개국을 통과하는 ①번 노선의 고속도로로 떠날까? 아니면 ⑥번 노선인 중국,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으로 떠날까?

발길 머무는 대로 아시아 고속도로 따라 떠나볼 때도 머지않다.

실크로드 탐방-아시아고속도로의 해외여행 어때요?

아시아 고속도로! 자국의 국토개발, 지역개발의 촉진과 관광산업의 활성화 물류교류의 활성화가 크게 기대 될 것을 전망해 본다.

(원고 접수일 2004. 7. 14)